

한국, OECD 국가 중 ICT 산업 의존도 최고

(정보통신기술)

삼성KPMG, ICT산업 인수합병(M&A) 현황·주요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계법인 삼정KPMG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ICT산업 인수합병(M&A) 현황과 주요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부가가치(GVA)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5.5%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두 배 수준인 10.7%로 OECD 국가 가운데 IC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의 ICT 제품 수출규모는 전체 7%를 차지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한국 내 ICT 제조업 GDP는 1970년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26.0%에 이르렀다.

글로벌 M&A 시장에서도 ICT 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세계 ICT 산업 M&A 거래 건수는 지난해 기준 5920건으로 유통(1499건), 자동차(598건), 화학(824건) 등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M&A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M&A 거래 가운데 ICT 산업의 비중은 지난 8년간 20% 이상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ICT 산업 M&A 비중이 큰 원인으로 다양한 산업과 ICT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산업과 ICT 산업과

의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ICT 제조 관련 스타트업 M&A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ICT 산업 M&A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중국(6건), 베트남(6건), 싱가포르(5건), 인도네시아(3건) 등 아시아 신흥국을 대상으로도 다수의 M&A가 진행됐다.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한 M&A보다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한 형태가 두 배 이상 많은 점도 주목됐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김광석 수석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

해 온 ICT 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ICT 산업 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M&A를 추진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을 도입하고 범용화된 플랫폼을 구축해 새로운 ICT 서비스 영역을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 크로스보더M&A담당 민홍길 상무는 "최근 진행된 AT&T의 타임워너 인수, 인텔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모바일이 인수 등의 사례와 같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자율주행기술 등의 유망 기술을 포착하기 위한 융합형 M&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아이폰X, 혁신 부족 '혹평'

수준·출시 지연 등 부정적 이슈 꼽아

애플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아이폰 10주년작 '아이폰X(텐)'에 대해 시장에서 혁신 부족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시장 일각에선 베일 벗은 아이폰X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혁신의 수준, 출시 지연 등은 부정적 이슈라고 꼽는다.

아이폰X가 아이폰 10주년작으로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탑 록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스티브 잡스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라며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하락했고 시간 외 거래도 약보합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X는 예상보다 늦은 11월3일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1차 출시된다. 당초 9월말, 10월초 출시가 예상됐기에 소비자의 실망은 컸다. 선주문은 10월27일부터다.

이 연구원은 "특히나 한국은 이번에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애플은 한국을 3~4차 출시국으로 분류해 국내 소비자들은 1차 출시국보다 1~2개월 늦게 제품을 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아이폰X는 빨라야 12월에 국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애플이 OLED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아이폰8과 아이폰8플러스가 9월부터 출시되는 만큼 아이폰X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폰X는 5.8인치형 액정을 탑재했다. 아이폰 중 처음으로 OLED가 적용.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 약점이었던 밝기나 색감의 설정을 보완했다. 1125 x 2436 해상도이며 인치당 픽셀(ppi)이 463ppi에 달한다. 크기는 143.6 x 70.9 x 7.7mm이며 무게는 174g이다.

아이폰8와 아이폰8플러스는 LCD를 각각 탑재했다. 아이폰8의 화면 크기는 4.7인치이며 750 x 1334 해상도 디스플레이, 326ppi다. 제원은 138.4 x 67.3 x 7.3mm이며 무게는 148g다. 아이폰8플러스는 5.5인치형으로 1080 x 1920 해상도를 갖는다. 401ppi이며, 158.4 x 78.1 x 7.5mm, 202g이다. /뉴스시스

전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성... 문제 해결 나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해외 진출 식품기업 애로사항 해결

전주시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기업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120여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총 13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이 가운데 103여건을 해결해줬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나머지 27건 중 현재 22건은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개정과 타 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나머지 5

건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중국 스타벅스에 원료를 수출하며 해외로 뻗어나가던 한 식품기업이 노후화된 공장 탓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기업 성장의 한계에 부딪하자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

당초 이 업체는 HACCP인증을 받기 위해 공장 시설을 개선해야 했지만,

공장이 위치한 여의동은 지난 2005년 도시계획시설 상 체육시설인 운동장으로 결정돼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증개축이나 재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이후에도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성장의 걸림돌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한 조례 3건을 개정하고, 기업의 수출지원요구에 의해 수출예산도 10배 늘렸다. 또,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앙부처 방문시 건의하는 등 소통 정책을 펼쳐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업발전의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작지만 해당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밑바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임실N양념식품육성산업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임실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고추와 텃밭농산물인 양념채소를 융·복합한 임실엔양념식품육성산업이 다양한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실군은 1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임실엔양념식품육성사업 제품개발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식회와 함께 맛과 기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양념사업단 운영·자문위원, 재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식회 행사에는 맛김치, 깍두기용으로 분말형태의 김치양념 1

종과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양념 2종, 피자 핫소스용인 고추액상소스 등이 선보였다.

특히 분말형태의 양념제품으로 만들어진 맛김치와 깍두기 치즈맛 핫소스 등은 참석자들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맛과 기능성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제품들은 최근 1인 가족의 증가와 혼밥족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에 맞춘 간편하고 맛깔스러운 양념식품으로 평가받았다.

군은 특히 내년도 양념가공공장 준공을 앞두고, 고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양념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임실군은 1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임실엔양념식품육성사업 제품개발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가졌다.

군은 또한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임실기간에 걸쳐 열리는 '제2회 임실이사이사김장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차별화된 맛있는 양념 만들기예 주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30대 개인연금보험 가입 큰 폭 '하락'

20~30대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884만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 총 인구 대비 가입률은 17.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입자수는 2.3%, 가입률은 0.5%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었다.

40대 29.8%, 50대 25.3%, 30대 21.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30대 가입률은 최근 3년

간 2.1%포인트 감소해 전체 가입률 감소분(0.4%포인트)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연금보험 가입은 좋고 있지만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짧은층의 관심은 컸다.

보험개발원이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 연령대에 비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것으로 예상했으며 노후생활 위험 요소 중 장수 리스크를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금상품 구매의향도 가장 컸다.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은퇴준비자 중 향후 개인연금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

올해도 개인연금에 관한 상세 내용 인지도는 가장 낮았다. /뉴스시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계옥